

유관기관칼럼

건설자재시험 인증 강화를 위한 제언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四川)성의 비싼이 수많은 중국인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어린 북송들을 맞아간 학교 건물의 붕괴 현장에서 나온 건설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할 수 없었다.

기사에 의하면, 학교 건물의 기둥이 철근 하나 없이 속빈 벽돌로만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건설자재를 쓴 정부 건물은 피해가 적었다는 또다른 소식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여 전재지변에 인재(人災)가 더해진 참극임을 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철근이나 시멘트 등 건설자재의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부실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폭리를 취한 업체를 가려내어 엄벌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건설에서 기초자재의 품질이 안전한 국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부실 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방양보' (亡羊補牢) 해야 할 것이다.

'방양보'는 우리 속담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인을 이미 그르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때늦음을 나무라는 우리말과 달리 이 고치는 잘못을 고치는 데에는 늦음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고류질의 건설 자재를 사용했으나의 이 부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피해 규모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보면서 기초자재의 품질을 검증하는 일의 중요성을 제삼 확인하게 된다.

십여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삼봉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부니지는 등 건설품질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인재를 방지하고 또한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 건설 자재, 건설 품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기능과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인증, 표준화, 연구개발,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지난 해 사상 최대의 수주액(398억달러)을 기록하였으며, 국내 건설 기술도 초대형화·초고층화·고기능화 하는 추세에 부응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선호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원장
02-3411-8886-7

그러나 이웃나라의 참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구조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술혁신을 통해 초상대화, 고기능화는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안전성 또한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신공법, 신재료를 개발하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자재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시험/인증이란 말 그대로 제품의 품질이 관련 표준이나 기술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기관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받게 된다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유통될 수밖에 없는 어군이 조성될 것이며, 신기술 신공법 등의 시장 진입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system이나 사고방식 등을 고치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큰 투자도 필요치 않다. 따라서 건설자재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이나 품질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보다 유효한 수단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자재 및 부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부재는 품질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임의해 시험한 결과 품질수준이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면 KS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더욱 신뢰성 있게 수행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것 또한 건설분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국가의 사범 기능이 신뢰를 잃을 경우 사회적 위기가 불가피하듯 산업분야에서 시험/인증기관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시장 질서와 국민의 안전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으며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같은 인식 하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건설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로 자리잡은 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만이 모든 시험/인증 과정에 참여토록 의무화 하는 등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또한 시험/인증은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간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뒤늦게라도 대비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많다.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는 초기 형태의 콘크리트가 건설자재로 쓰이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화산재를 섞어 더욱 내구성을 높이는 등 기술발전을 가져왔다. 슬한 지진피해를 본 일본은 지난 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치밀하고 꾸준하게 대비한 결과, 연휴여전 발생했던 강진에도 피해규모가 미미했다고 한다. '망양보외'를 잘 하면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웃나라들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꾸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건설 분야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기관을 육성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수립되는 등 건설, 전자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건설, 전자제산업이 국가 발전에 제몫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기술표준2008.7